

# 마지막까지 마음의 불안, 유혹을 의심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옮김) (정병조 옮김)

## 17. 악마(惡魔)의 시험 ㉔

전도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7년(七年)이란 이름의 〈악마상응〉의 제24경의 한 구절은 보리수 밑에서 정관(靜觀)하는 붓다에게 속삭인 악마의 말을 다음과 같이 계(偈)로써 기록하고 있다.

그대 만일 불사안온(不死安穩)에 이르는 길을 깨달아 얻었다면 떠나라, 그대 혼자서 가라. 무엇 때문에 그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가.

이 이상한 속삭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생각건대 붓다의 큰 방기(放棄)의 감행(敢行)(출가,出家)과 오랫동안의 수업(修業)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그 해결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이며 거기에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거나 이 교법을 전도(傳道)까지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닌 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붓다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은 ‘범천권청(梵天勸請)’의 설법에서도 명백하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큰 위험이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면 그는 인간구조의 사회적 측면을 잘못 본 것이며, 나아가서는 불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위험의 극복은 ‘범천권청’의 설화에 있어서는 신화적(神話的)이면서도 객체적(客體的)으로 범천(梵天)이 찾아와서 붓다에게 법을 설명할 것을 간청하며 붓다가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전도설법(傳道說法)을 결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악마상응〉에 있어서 그는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면서

피안(彼岸)에 이르기를 소원하면서 나에게 그 길을 묻는 자가 있었다. 물음을 받고 나는, 그들에게 모두 여의(餘依)없는 열반을 설명하리라.

이같이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것이 붓다 마음의 움직임을 실제와 가깝게 설명하고 있을까.

설법자로서의 불안과 반성

대각(大覺)의 확신은 이루어졌다. 최초의 설법은 결행되었다. 그로부터 45년의 긴 세월동안 붓다의 전도설법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 전도설법을 하는 동안에도 악마는 자주 붓다를 시험하였다.

‘사자(獅子)’라는 제목의 〈악마상응〉의 제22경에는 붓다가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법을 설명하고 있을 때 악마가 그의 마음에 속삭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대는 어찌하여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사자후(獅子吼)하는가. 여기에 그대의 힘겨운 적수(敵手)가 있나니 그대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또 계(偈)로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큰 회중(會衆)들을 앞에 두며 두려운 것이 없으며, 마음은 즐겁다. 이미 여래(如來)의 심력(心力)을 얻어 애착(愛着)의 세상을 초월(超越)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상응(相應)’이란 제목의 경에서는 그가 재가(在家)의 대중들에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을 때 악마가 그에게 속삭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대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니라. 그대는 그런 일을 감히 함으로써 탐(貪)과 진(瞋)에 속박(束縛)될 것이니라.

이것에 대한 그의 대답도, 계(偈)로써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애민(哀愍)을 위해서 정각자(正覺者)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니라. 여래(如來)는, 탐욕과 노여움을 이미 모두 모두 해탈(解脫)하였도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악마의 시험이란 내면적 마음의 동요(動搖)이며 불안이며 미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대각(大覺)을 성취하였으며 법륜(法輪)을 굴리는 붓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악마의 시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내심(內心)의 미혹이 있었으며 불안이 있었다는 것은 종래 불교인의 상식으로서의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종래 이러한 경전은 감히 무시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한역(漢譯)의 〈잡아함경(雜阿含經)〉도 남부(南傳)의 〈상응부(相應部)〉경전도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율장대품(律藏大品)의 대각(大覺)에서 초기의 전도(傳道)까지를 기록한 부분도 이러한 악마



경주 남산 미륵굴 석불좌상. 수인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취한 정각(正覺)을, 지신(地神)이 증명하였음을 상징한다.

이야기의 몇 편을 그 속에 편집(編集)하고 있다.

생각건대 대각(大覺)과 함께 일체가 해결되고 일체가 확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붓다의 인간적 진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 크나큰 깨달음의 후에도 그가 불안을 느끼며 마음의 미혹을 느끼며 반성을 반복함으로써 차츰 차츰 움직이지 않는 경지(境地)에 도달하였다고 생각 하는 것이 더 붓다의 진실에 접근하는 이유가 아닐까.

권세(權勢)의 유혹

또 ‘통치(統治)’라는 이름의 경에는 그의 마음이 잠시 권세(權勢)와 재욕(財慾)을 생각하였던 구절이 있다. 그때 그는 이상(理想)의 정치(政治) 형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살생(殺生)이 없는 통치,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주지 않는 통치, 그러한 정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하며 생각하여 보았다.

거기에 악마가 “세존 스스로 통치하여

보라”라고 속삭였다. “세존은 지금 무엇이건 뜻대로 이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만일 결심만 한다면 저 설산(雪山)을 변하게 하여 황금이 되게도 할 수 있으리라” 이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계(偈)가 되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저 설산을 변하게 하여 황금이 되게 하며 다시 또 그 두 배가 되게 한다 하여도 능히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 이것을 알고서 사람들이여, 올바르게 행하여라.

거기에는 식욕(食慾)의 미망(迷妄)이 있었으며 권세의 시험이 있었으며 설법자의 불안이 있었다. 전혀 새로운 사상과 실천으로서 이것을 인류 가운데 가져오는 이 스승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시련은 수 없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련(試鍊)의 단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들에 우리들은 새로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스님과 꽃상여

독신 수행승을 비구(比丘)라 한다. 비구란 결사(乞士)이며 무소유(無所有)의 삶이 기본 모토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무집착으로 시작해 무소유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행승의 본분사일 것이다.

우선 영단에서 독송되는 염불을 한 구절 옮겨보겠다.

삶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生從何處來) 죽음이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死向何處去) 삶이란 한 조각 구름에 이른 것이며 (生也一片浮雲起)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인데 (死也一片浮雲滅) 뜬 구름 자체가 실다운이 없거늘 (浮雲自本無實) 삶과 죽음 또한 오고갔니 그러하네 (生死去來亦如然)

굳이 최희준이 부른 ‘나그네’를 떠올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신도들의 시주 물에 의해 입은 혜택이 크고 무거울 터인데 죽어서까지 신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차려주는 짚상으로 위로받고 싶은지 강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해탈자의 무소유 무집착이 무슨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고 바람 뿐이다.

### 생일 잔치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이 해마다 꼬박 꼬박 생일 잔치상을 받고 있다. 세속에 서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육수와 회갑 잔치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환갑, 회갑 잔치상을 스님들이 버섯이 받고 있다. 거기다가 칠순, 팔순 잔치도 눈 하나 까닥하지 않고 부처님 도량인 사찰에서 거하게 차려지고 있다.

물고 싶다. 세속의 애착을 저버리고 출가 수행하는 승려라면 생일날쯤은 잊거나 접어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알리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신도들이 어떻게 스님의 생일 알아 상을 차려 주겠는가.

## 수행승의 기본은 ‘空手來空手去’ 화려한 장례와 생일상 웬말인가

필 필요도 없을 터이다. 인생의 삶 그 자체가 한 조각 뜬 구름이요, 정처없이 떠돌다 막 내리는 나그네의 삶 그 자체가 니까.

더욱이 독신 수행승인 비구 스님들의 삶의 마무리는 탈세속적인 초연함으로 일관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법랍(法臘)의 길이가 긴 노승(老僧)일수록 장례 절차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화려하다.

꽃상여는 기본이고 5일장 7일장은 선택코스다. 분시 상여 문화는 유교문화다. 비구가 죽어 꽃상여로 치장하고 5일장 7일장으로 번거로움을 더해 간다면 이런 행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고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일들이다.

한국불교에는 자칭 타칭의 고승들이 널려있다. 그들이 죽을 경우 장례 절차 또한 번거로울 만큼 요란하다. 49재 또한 빠뜨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다.

49재의 의미는 자식들이 못다한 효(孝)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뇌어 영가(靈駕)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데 있다 하겠다.

나는 출가 이후 50년이 다 된 오늘까지 생일상을 받은 적도 한번 없고, 신도들 역시 생일없는 스님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생일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스님이 아니라 그 스님의 세속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일 터이다.

어떤 사찰의 경우 생일을 맞은 스님이 생일상만 받은 게 아닌 모양이다. 신도들이 어렵게 마련해준 생일 축하금이 든 봉투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땀땀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다. 당장 사라져야 할 창피스러운 일들이다.

환갑이 되고 칠순 팔순에 이르러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해하며 수행 정진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생일 잔치상을 받지 않았고, 차려줄 신도도 없었다. 승단의 세속화는 생일 잔치상 하나로도 그 슬픔이 크다 하겠다. 생일 잔치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거듭 밝히지만 출가 수행승이 아닌 그 스님의 부모님 몫이기 때문이다. <미륵산 사자암 주지>

#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생품(30:24)	제11, 권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왕본사품(14:46)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언론사